

한국의사시인회 역사 - 창립 및 활동

유담(한국의사시인회 초대 회장)

질병과 관련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시의 귀중한 주제다.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처럼 시인은 인간의 고통과 변화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여 시를 짓는다. 둘 다 삶의 고통과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치유한다. 기원을 공유하는 의학과 시가 만나면 서로의 근본을 자극하고 풍요롭게 한다. 이 진실을 더 구체화하기 위해 한국의 의사 시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011년 11월 7일 월요일 오후 8시, 한 의사 모임에서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교수 유담 시인이 의사시인 모임 결성을 제안했다. 의사시인들의 모임 태동은 유난히 추운 겨울을 지나 2012년 3월 17일(토) 오후 8시, 대치동 '카페베네'에서 유담이 홍지현에게 창립 취지를 설명하고 의기를 투합하면서 싹 틔울 힘을 기른다. 병리학자 허만하, 방사선과 전문의 마종기 등 의사시인들에게 창립 의도와 계획을 알리고, 3월 23일(금)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마종기 시인을 위시한 여러 의사시인의 창립회원으로서의 동참을 다짐받는다.

곧 이어 3월 29일 유담 시인과 홍지현 시인은 오후 7시 영등포 신세계백화점 식당가의 칠보면옥과 10층 커피점에서 연이은 회의를 갖고 목적, 명칭, 사업 내역 등의 초안을 잡는다.

이즈음 큰 힘을 북돋운 것은 미국의 마종기 시인으로부터 온 이메일이었다.

“안녕들 하세요?

좋은 일을 계획하시는 여러분들께 멀리서나마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언젠가는 시작이 되어야 할 모임이라고 나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돕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많은 분들이 참여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건이 허락치 않는다면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말도 참고하셔서 차근차근 모임을 키워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게 됩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오늘은 이만 그칩니다.”(2012년 4월 7일 오후 11시)

5월 7일 오후 8시 30분 충무로 스타벅스 준비 모임을 통해 창립일시와 장소를 확정하고, 창립취지문은 유담이 쓰기로 하였다. 동시에 활발히 시작업을 하고 있는 의사 시인들과 일일이 연락 접촉하여 명부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드디어, 2012년 6월 9일 오후 6시, 서울역 내 KTX5 회의실에서 한국의사시인회(The Korean Physician Poets Association) 창립총회가 열렸다. 회의 순서에 따라 취임 선언문을 낭독하고 채택했다.

‘한국의사시인회’ 창립취지문

의학을 실험적 검증과 과학적 추론만의 영역으로 경계 짓는 것은 미흡하다. 진정한 의학은 인간에 대한 심오한 이해에 관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시(詩)와 깊이 닿아 있다. 따라서 시와 의학의 융합은 직관, 상상력 그리고 창의적 공감을 바탕으로 서로를 풍부하게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의학과 시가 과학과 예술로 구분되어 각각의 영토에 제각기 놓여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은 의학과 시의 사이에 놓여있는 고급스러운 구별을 헐어내고 사귀어 서로 오가는 통섭(通涉)의 능력을 갖춘 의사시인의 능동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의사시인들이 시적 소양을 증진시키기 위한 상호 교류의 터전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의료발전과 시적 능력 고양에 함께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국의사시인회'를 창립한다.

우리 '한국의사시인회'는 창립 목적을 달성하고자 시회(詩會), 시집 발간, 강연회 등을 포함한 의료와 시의 통합으로 오히려 각각의 고유성이 한결 빛나는 활동을 할 것이다.

먼 후일, '한국의사시인회'가 내딛는 오늘의 첫걸음이 의료계와 시계(詩界)의 많은 이들에게 지혜와 포용의 무변(無邊)한 가능성으로 기억되기를 소망하며, 시를 사랑하는 의사들의 동참을 청한다.

2012년6월9일 오후6시 서울역KTX5 회의실

'한국의사시인회' 창립회원: 김경수, 김세영, 김연중, 김 완, 김춘추, 김현식, 나해철, 남상혁, 마종기, 박강우, 박연휘, 서홍관, 송세현, 신승철, 이규열, 이영우, 유 담(유형준), 장원의, 조광현, 홍지현, 황 건(가나다順)
(취지문 작성: 유담)

이어 초대 회장에 유담을 선출하고, 마종기 시인, 김춘추 시인, 신승철 시인, 김경수 시인 등을 고문으로 위촉하고, 부회장으로 송세현 시인, 박연휘 시인, 총무에 김연중 시인을 선임했다. [그림 1, 2].



그림 1. 한국의사시인회 창립 기념사진. (앞줄 오른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김경수, 김춘추, 유담, 박연휘, 신승철, 송세현, 김연중, 나해철, 김현식, 장원의, 이영우, 황건, 홍지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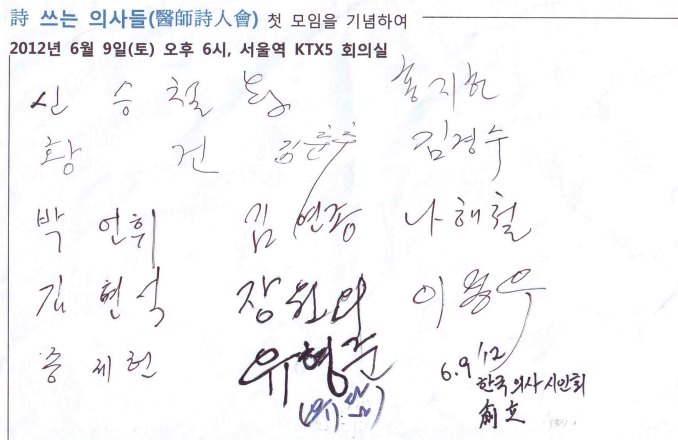


그림 2. 창립 기념 서명판

일 년 후 2013년 6월 29일, 25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첫 번 시집인 『닥터 K』(도서출판 황금알)를 마종기 시인의 축하 서문을 실어 펴냈다. 이후 빠짐없이 매년 공동시집을 발행하고 있다. 그 동안 발간한 공동 시집의 제목을 표1에 정리한다.

표 1. 공동 시집 목록

	시집 제목	발행 연도
제1집	닥터K	2013
제2집	환자가 경전이다	2014
제3집	카우치에서 길을 묻다	2015
제4집	가라앉지 못한 말들	2016
제5집	그리운 처방전	2017
제6집	왜 우리는 눈물이 나는 걸까?	2018
제7집	달이란 말이 찻잔에 올라왔다	2019
제8집	코로나 19 블루	2020
제9집	진료실에 갇힌 말들	2021
제10집	개화산에 가는 이유	2022
제11집	바람의 이름으로	2023
제12집	씨앗들의 합창	2024
제13집	무등산 나무의사	2025

*시집 표지는 이 카페 ‘자료실’에 별도 파일로 게재.

또한 한국 의사시인회는 정기적으로 강사를 초청하여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 그간 이승하 시인, 김중주 의사 문학평론가, 홍일표 시인, 이경철 평론가, 황학주 시인, 엄경희 교수, 홍용희 평론가, 고영 시인 등을 초청하였다. 2022년 10월 8일, 고문 마종기 시인의 특강을 가졌다.

지난 2023년 12월 2일, 회원의 시와 삶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첫 시간을 가졌다. 초대회장인 유담 회원이 ‘나의 삶 나의 문학 - 의학과 시과의 접경에서’, 이원로 고문이 ‘나의 시론’을 발표하였다. 뒤이어, 2024년 11월 26일, 김세영 회원이 ‘나의 우주시와 디카시’를 발표하였다. 2025년 12월 6일엔 서흥관 시인이 ‘신경림 시인의 시와 생애’를 강연했다.

회장과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역대 회장, 총무 명단은 표2와 같다.

표 2. 역대 회장과 총무 명단

	역임 기간	회장	총무
초대	2012.6.9. ~ 2015.12.31	유담	김연종
2대	2015.1.1. ~ 2016.12.31	김세영	김연종
3대	2017.1.1. ~ 2018.12.31	김승기	홍지현
4대	2019.1.1. ~ 2020.12.31	김 완	홍지현
5대	2021.1.1.~ 2022.12.31	홍지현	김기준
6대	2023.1.1. ~ 2024.12.31	김연종	송명숙
7대	2025.1.1. ~ 현재	서 화	박권수(1.1~2.28) 윤태원(3.1~)

현재 회원은 고현심, 권주원, 김경수, 김기범, 김기준, 김대곤, 김세영, 김승기, 김연종, 김 완, 김응수, 김정곤, 김현식, 김호준, 나해철, 박강우, 박권수, 박세영, 박연휘,

박영미, 서흥관, 서화, 손경선, 송명숙, 송세현, 신승철, 유담, 윤태원, 이규열, 이용우, 장원의, 정의홍, 조광현, 주영만, 최예환, 한경훈, 한현수, 허준, 홍지현, 황건 (가나다 순) 등이다.

올해 2025년, 한국의사시인회는 열세 살이다. 한국의사시인회는 의학과 시의 통섭, 그러나 각각의 고유한 빛이 더 빛나는 통섭을 실천하고자, 창립취지문에 밝힌대로 의학과 시계(詩界) 모두를 위한 지혜의 경계 없는 가능성의 실행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주요 참고 문헌>

- 유형준. 글 짓는 의사들. 의학신문사-지누출판사, 서울, 2024.11. 18.
- 유담. 시(詩) 짓는 의사들. pp. 251-270 In: 의학에서 문학의 샘을 찾다. 유담 지음, 황금알, 서울, 2023. 10. 10.
- 유담. 시(詩) 짓는 의사들. 문학청춘 2020;43:304-320.
- 유담. 한국의사시인회의 성격과 전망. 시문학 2014;1:111-134.
- 유형준. 글 짓는 의사들 모이다. pp. 453-456 In: 글 짓는 의사들. 유형준 지음, 의학신문/지누출판사, 서울, 2024. 11. 18.
- 유형준. 유담 유형준 교수의 의사문인열전(연재). 의학신문. 2020년 5월~2024년 10월.
- 유형준. 의학적 인간이해의 통로인 문학 - 문학 속 비만의 상징성을 예로. 문학과 의학 2011;2:119-132.
- 유형준. 행림 시 산책(연재). 의학신문. 2012년 5월~2013년 1월. [국내 의사시인들의 시 감상]
- McLellan MF, Jones AH. Why literature and medicine? Lancet 1996;348:109-111.
- Schwartz RS. "Medicine is my lawful wife" - Anton Chekhov, 1860-1904.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2004; 351(3):213-214.
- 김연중. 멜랑콜리거에게 박수와 갈채를 - 한국의사시인회의 뿌리를 찾아서. 문학청춘 2022;54:323-335.
- 김연중. 시동인회순례(25) 한국의사시인회. 웹진《시인광장》 2013년 7월호.

<작성: 2026년 1월 8일>